

◆ 특 집 ◆

홍콩의 중국 귀속과 韓中무역 전망

I. 홍콩시장의 의의

우리나라의 제1위 무역흑자시장이며 해외 자금조달시장인 홍콩이 7월 1일 중국으로 귀속됐다.

홍콩은 우리나라와 통상마찰이 없는 100억달러가 넘는 최대무역흑자 지역이며, 지난해에는 120억 달러를 육박하는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업계에서는 홍콩수출분중 80~90%가 각종 경로를 통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존도가 그만큼

높은 것이다. 수출의 많은 부분은 홍콩과 중국접경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이런 국경통로를 이용하는 수출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매년 300억 달러 정도를 홍콩에 수출한다. 그 다음은 대만, 미국, 싱가포르 순이며, 우리나라는 다섯 번째다.

우리나라의 대홍콩수출은 중국이 시장경제를 착수한 1992년 이후 급증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홍콩이 중국에 편입되면 우리나라의 대 홍

한국의 대홍콩 교역추이 및 전망

(단위 : US\$ 백만)

년 도	수 출	수 입	수 지
1987	2,204	396	1,808
1990	3,780	614	3,166
1992	5,909	794	5,115
1993	6,430	934	5,946
1994	8,015	660	7,355
1995	10,682	838	9,844
1996	10,150	1,143	9,007
1997*	11,850	1,600	10,250

자료 : 통산부 수출입통계, '97년은 KOTRA 홍콩무역관 전망치

콩교역은 중국과의 교역이 된다(물론 홍콩은 '一國兩制'하에 특별행정구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게 되어 있어, 당장은 아닐지라도 머지 않아 통계상으로도 통합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중국과 홍콩을 합쳐 총 무역액 335억 달러에 무역흑자 130억달러를 기록한 셈이 되어,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중국과의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가 간단치 않은 일로 드러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자금조달시장으로서의 홍콩도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홍콩에서 빌려쓴 중장기자금은 42억 4천만 달러에 달하여 전체 해외 차입의 31.3%를 차지하였다. 홍콩 금융시장이 한국 최대의 돈줄로 부상하면서, 종래 무역금융위주의 홍콩금융 활용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II. 홍콩 귀속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중국의 인식

홍콩이 중국으로 편입되면 홍콩의 장래는 물론, 우리나라와 홍콩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문제의 핵심적 열쇠는 중국 정부가 쥐고 있다. 앞으로 홍콩에 적용할 '一國兩制'를 얼마나 탄력적으로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중국은 홍콩 回歸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홍콩의 '순조로운 회귀'를 실현하면, 일석이조의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나는 대만과의 통일문제의 진전이며, 또 하나는 중국 현대화에 대한 도움이다. 이는 1984년 '홍콩 문제에 관한 중·영 공동선언'을 가서명하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다. 통일과 경제발전, 이 두가지는 모두가 오늘날 중국 정부가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중국은 홍콩의 번영과 안정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전통적으로 역사를 중시하는 중국인들에게 홍콩 귀속의 역사적 의의는 더욱 감격적이다. 제국주의 침략에 의한 155년의 치욕적인 역사를 마감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 역사적 사건을 민족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전기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영 양측이 무역수단이 아닌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사실은 국제적 분쟁해결에 좋은 선례를 제공하여 중국으로서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여 중국외교의 영향력과 위상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 수확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부 서방국가들이 중국에 대하여 인권이나 언론 등의 문제를 끈질기게 거론하고 있는 것도 홍콩 귀속으로 달아오르고 있는 중국분이나 중국외교의 상승세 견제를 겨냥한 노림수라는 측면을 배제하기 어렵다.

2. 중국 현대화

홍콩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상호 깊은 의존 관계에 있으며, 이같은 관계는 1979년 중국이 현대화를 표방하면서부터 급속하게 심화되어 왔다. 이때부터 중국은 기존의 무역 및 해외차관도입을 확대함은 물론 그동안 금지되었던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를 허가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홍콩은 점차 중국의 무역기지 및 해외자금 도입창구로서의 역할이 대폭 확대되어 나갔다. 오늘날 중국은 해외 자본조달의 60~70%를 홍콩에서 조달하고, 홍콩은 중국 현대화 이래 은행들의 역외 대출중 15%를 중국에 대출하였다.

또한 홍콩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5.8%('96년)에 달하며, 중국수출의 60% 이상이 홍콩을 경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고속성장세는 홍콩 경제의 번영을 뒷받침하게 되었고, 홍콩 경제의 역동성은 중국의 자본 및 기술도입과 대외무역 등 대외개방을 견인하는 선도역을 수행하는 관계로 발전하였다. 중국 경제발전에 따라 홍콩 경제도 그만큼 활기를 더해가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주로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영향으로 홍콩 경제는 이 두 분야에서 성장을 거듭해왔으며, 중국 경제가 고성장추세를 지속하는 한, 귀속 이후에도 홍콩의 이같은 역할은 확대되어 나갈 전망이다.

투자분야에서, 홍콩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지난해 6월말 현재 805억 달러(실세 도입기준)로 중국의 직접투자 총 규모중에서 51.5%(광동성의 경우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자본이 투자하고 있는 홍콩의 주요 中資企業(홍콩내 중국 자본이 투자한 기업)은 약 1,800개 수준(작은 것까지 합하면 약 5,000개), 자산총액은 약 425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무역분야에서, 중국은 홍콩의 최대파트너, 그리고 홍콩은 중국의 제2위 파트너이다. 지난해 홍콩은 총 교역액의 35.8%인 약 1,350억 달러('95년은 1,270억 달러)를 중국과 교역하였으며, 중국의 대외수출중에서는 60% 이상이 홍콩을 경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호간 교역 의존도는 당분간 증가추세를 지속할 것이다.

지난해 홍콩은 중국 경기의 저조로 인한 재수출 둔화와 내수경기 침체로 수입이 약세를 보였으나(수입증가율 : '95년 19.2% → '96년 3.0%), 금년에는 중국 및 홍콩의 경기 호전으로 수출입 증가율도 지난해 대비 각각 2배 정도 상승할 전망이다.

귀속 이후 홍콩은 중국 현대화를 가속화하는 촉매역할을 지속하여 중화경제권 결속을 앞당기고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광동성 등 중국 남부지방과 단일 경제권 형성을 가속화하면서, 홍콩의 제조업은 중국 남부지역으로 이전하고, 중국의 기초과학기술은 상업화 기지로서의 홍콩의 역할에 기대를 걸게 될 것이다.

3. 一國兩制하 고도의 자치권 부여

홍콩 귀속협상은 등소평과 대처 당시 영국 수상이 홍콩 문제를 놓고 1982년 북경에서 협상을 벌이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중·영 공동선언’ 형식으로 합의하고, 이 ‘선언’을 기초로 중국은 귀속이후 홍콩특별행정구의 母法이 될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1990년에 제정·공포하였다. 이제 홍콩은 7월 1일을 기하여 정치적으로 영국의 직할식민지를 벗어나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편입되었다. 정치적 위상이 변하는 것이다. 귀속이후 홍콩의 대외명칭은 ‘中國, 香港’으로 영문명은 ‘Hong Kong, China’로 바뀐다.

귀속이후 홍콩은 ‘중·영 공동선언’과 ‘홍콩기본법’에 따라 향후 50년간 ‘一國兩制’를 대전제로 하여 외교·국방을 제외하고는, 자본주의 체제유지를 전제로 하여 경제적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최대한으로 보장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경제분야의 보장이 실현된다고 해도 종전과 달리 홍콩 자본주의의 체제는 중국의 보장이라는 전에 없던 전제조건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홍콩 경제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본질적인 상황변화인 것이다. 또한, 당장은 홍콩의 ‘자치보장’으로 기존의 경제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홍콩의 중국화’ 경향에 따라 경제의 내용도 점차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홍콩의 중국화’ 경향에 따라

경제의 내용도 점차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홍콩의 중국화’ 문제는 그 전과정에서 ‘일국양제’의 원칙과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곳곳에 들어있어, 최근 알고 있는 홍콩 장래에 대한 낙관론적 분위기에 가장 까다로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4. 경제적 효과

홍콩 회귀가 안겨줄 경제적 실리는 중국의 현대화 추진에 핵심적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빼앗길 때는 향나무를 실어 나르던, 그리고 대륙을 골병들게 하는 아편을 실어 나르던 보잘 것 없는 작은 어항에 불과했으나, 150여년만에 되돌아 올 때는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 ‘동방의 진주’라는 찬사를 들으며 ‘중화문명 부활의 전령사’로서의 기대를 안고 금의환향하게 된 것이다. 우선, 중국은 홍콩경제의 흡수 그 자체로 엄청난 부를 끌어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같은 경제통합에 따른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숫자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홍콩 귀속후 중국은 인구면에서는 200분지 1인 630만명이 증가하는데 불과할 것이나, GDP는 금년도 중국대륙의 전망치인 9,800억 달러의 5분지 1에 해당하는 1,750억 달러가 늘어난 1조 1,500여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GDP 1조 달러가 넘는 경제대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된다. 이에 따라 일인당

GDP도 790달러에서 925달러로 올라 일인당 GDP 1천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된다. 외환보유고는 1,100억 달러로부터 800여억 달러가 증가하여 2,0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이며, 대외무역은 중국 3,000억 달러와 홍콩 2,500억 달러를 합하여 5,500억 달러(중국과 홍콩간 교역 1,500억 달러는 제외)에 달하여 GDP, 외환보유고, 대외무역규모 등 경제총량명에서 크게 확대된다(이상 1997년 기준으로 추정).

세계 5위의 외환시장과 세계 8위의 주식시장을 갖춘 금융·자본시장도 보유하게 된다. 물론 중국 정부는 당분간 이같은 통합수치를 즉각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같은 경제통합은 중국 경제의 위상을 강화시켜 주는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홍콩과 중국간에 거대한 통합경제권이 형성되어 대륙을 국내시장으로 활용할 홍콩 경제에도 팔목할 만한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승효과는 주로 생산요소 및 상품에 관한 중국의 각종 거래 장벽이 완화되면서 경제거래가 확대되는 데서 비롯할 것이다. 물론, 중국 경제가 위축될 경우는 홍콩 경제의 상승효과도 크게 제약을 받을 것이다.

다음은 중국이 21세기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데 필요한 시장경제 노우하우를 제공하고, 화남경제권 및 중화경제권 형성의 연결고리 역할을 크게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점은 홍콩 경제가 갖고 있는 특성과 저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Ⅲ. 홍콩의 사업환경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서비스 산업에 특화(서비스산업의 GDP 기여율이 77%에 달한다.)되어 있는 지역이다. 한마디로 서비스센터인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홍콩은 아시아의 교통중심지로서 천혜의 양항을 구비하였으며, 중국 남부 및 대만국과의 밀접한 경제교류를 통하여 華南經濟圈 형성의 핵심거점 역할을 하고 있고, 고도로 발달된 통신망·도로·항만 및 고급인력 등 사회간접자본 각 방면에서 세계 일급의 사업환경을 갖춘 아시아의 금융센터이자 외환규제가 없는 자유방임을 지향하는 시장이다. 그러나, 노동력 공급이 부족하며 임금이 높고, 부동산 가격도 계속 상승추세여서 공장부지는 물론 사무실조차 얻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결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귀속 이후에도 홍콩은 중국 및 여타 아시아 지역을 배경으로 한 국제금융센터 및 자유무역항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될 전망이다.

국제금융센터로서 홍콩의 위상을 보면, 세계 100대 은행중 85개, 세계 50대 투자신탁회사중 30개 업체가 주재하고 있으며, 세계 6대 외환시장(일일 거래액 기준), 아시아 2위 및 세계 8위의 주식시장(자금동원능력 기준)으로 꼽힌다.

자유무역항으로서 홍콩은 세계적인 중계무역 중심으로서 총 교역액('96년 3,788억 달러)의 4분의 3이상이 중계무역이다. 전체

수출액의 80% 이상을 재수출이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의 대외거래를 보면, 지속적으로 재수출형 구조로 전환되어 왔으며 이같은 경향은 귀속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홍콩의 이같은 서비스 기능은 장기적으로 볼 때, 아시아 시장의 빠른 신장이 지속될 경우, 점차 싱가포르·상해·대만 등과 상호 역할이 분화되어 나갈 것이다.

IV. 중전기기 교역 현황

우리나라 중전기기 대 홍콩 수출은 '96년 말 기준 112백만 \$ 이고, 수입은 12백만 \$

로 약 100백만 \$의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다. '90년 이후 교역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수출은 연평균 21.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은 연평균 13.0% 증가했다.

또한, '96년 수출액 112백만 \$은 우리나라 중전기기 전체 수출액의 약 6.3%를 차지, 중국·일본·미국에 이어 우리나라 4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96년 308백만 \$의 수출실적을 기록, 우리나라 중전기기 대 수출국이 된 중국과 홍콩의 수출액을 합칠 경우 420백만 \$에 달해 우리나라 중전기기 전체 수출액의 23.6%를 차지하는 제 1위의 교역 상대국이 된다.

■ 중전기기 대 홍콩 교역추이

(단위 : 천만 \$, %)

구 분	1990	1992	1994	1996	1997 (1-6)	연평균 증가율 ('90-'96)
수 출	39,631	82,653	90,292	111,695	50,118	21.4
수 입	7,587	10,639	11,643	12,422	7,734	13.0
무역수지	32,044	71,996	78,649	99,273	42,384	-

■ 주요 국별 수출 비중(1996년)

(단위 : 백만 \$)

구 분	전 체	중국 (1)	일본 (2)	미국 (3)	홍콩 (4)	말레이시아 (5)	인도네시아 (6)
수 출 액	1,779	308	289	177	112	109	85
비 중	100	17.3	16.3	9.9	6.3	6.1	4.8

* ()는 중전기기 수출규모별 순위임.

V.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홍콩 귀속후 한·홍콩 관계를 보면, 우선 단기적으로 우리 업계는 귀속에 따른 홍콩 경기의 호황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홍콩 경제는 금세기말까지 경제성장률 6%선, 대외무역증가율 10%선의 순항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홍콩의 안정적 번영을 고려한 중국 정부의 지원과 홍콩의 중국남부와의 경제일체화 가속, 그리고 중국이 WTO에 가입할 경우 중국 경제발전에 대한 홍콩기업과 외국기업들의 기대심리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홍콩 경제에 상당한 활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홍콩특수는 향후 수년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우리는 이처럼 예상되는 호기를 활용하여 현재 대중국 중계무역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홍콩 활용을 벗어나 금융, 보험, 유통, 정보 등 서비스 각 분야에 대한 사업확대는 물론, 홍콩기업들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중국 시장 및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기반을 충실하게 다지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홍콩의 중국편입에 따라 홍콩과 관련하여 한·중 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해 질 것이다. 홍콩 귀속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사건이다. 경제적으로 홍콩은 귀속후 50년간 자본주의 제도의 불변을 약속받고 있기

는 하나, 중국은 한·홍콩 관계에 대하여 외교분야는 물론 경제분야에 대해서도 서서히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홍콩 경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구체적인 필요성은 우선,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흑자국인 홍콩지역을 포함한 중국과의 통상관계를 원활하게 하며, 홍콩의 경제적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중국 화남지역에 대한 투자기회를 늘리고, 향후 홍콩을 우리의 무역·금융·정보 거점으로 활용하여 중화경제권 및 동남아 화교경제권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의 교두보로 삼도록 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귀속후에는 홍콩경기 활성화 및 광동성 등 중국남부와의 경제협력 확대로 이같은 수출이 더욱 증가하여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대홍콩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8.6%에서, 2000년에는 11%선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수출증대의 밝은 전망은 무역흑자로 이어지게 될 것인데, 문제는 중국이 점차 우리에게 교역 불균형문제를 제기하리라는 것이다. 우리는 전체 무역에서는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중국과 홍콩지역에서는 총 100억 달러가 훨씬 넘는 흑자를 내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시장인 것이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과의 무역불균형 문제는 점차 심각하게 드러난다고 보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